

고약해 경연학교

정성현 지음 | 이경석 그림 | 주니어마리

분야: 초등 학습 동화(역사 판타지)

대상: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주제: 세종대왕의 경연식 토론법, 말하기와 듣기, 발표

#토론 #말하기 #듣기 #발표 #경연 #세종대왕 #고약해 #세종실록 #역사동화 #판타지동화 #초등국어 #말의힘

교과 연계	2022 개정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기준	
초등 3~4학년	4국01-04	상황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며 대화한다.
	4국01-05	목적과 주제에 알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4국01-06	주제에 적절한 의견과 이유를 제시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토의한다.
초등 5~6학년	6국01-02	주장을 파악하고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며 듣는다.
	6국01-03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듣고 말한다.
	6국01-07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생각해 보세요



1.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볼까요? '토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 보세요.

2. 책 제목 《고약해 경연학교》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해 보세요.

3. '경연(經筵)'이라는 낱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뜻일지 짐작해 써 보세요.

1차시

어휘 영역



1. 다음은 《고약해 경연학교》에 나온 낱말의 국어사전 풀이입니다. 초성 힌트를 보고 알맞은 말을 찾아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ㅅ ㅅ ㅅ	‘깊이 생각하며 정치하라’는 뜻을 가진 경복궁의 전각. 세종대왕이 매일 신하들과 토론하던 곳. • 책 속 문장: “저기는 ○○○이란 곳인데, ‘깊이 생각하며 정치하라’는 뜻이야.”
ㄱ ㅀ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글을 읽고 토론하던 자리. • 책 속 문장: “세종대왕이 매일 신하들이랑 저곳에서 토론을 했다.” (사정전에서 ○○○이 열렸어요.)
ㅃ ㅃ ㅃ ㅃ	목소리가 또렷하고 분명한 모양. • 책 속 문장: “떨려도 ○○○○하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 말하기’이지.”
ㅅ ㅀ	마법의 힘을 부르거나 빌릴 때 외우는 글이나 말. • 책 속 문장: 그 책에 쓰여진 ○○을 외우니 고약해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2. 책에서 ‘귀 기울여 듣기’와 ‘좋은 질문 던지기’는 토론의 큰 비법이지요. 두 낱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사전 뜻을 읽고, 책을 읽으며 내가 느낀 의미를 더해 ‘나만의 뜻’을 새롭게 적어 봅시다.

경청(傾聽) 표준국어대사전: 귀를 기울여 들음.

예 경청이란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 나만의 뜻: 경청이란 _____

질문(質問) 표준국어대사전: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

예 질문이란 흐릿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만드는 마법. (책 속 고약해 선생님 말씀)

⇒ 나만의 뜻: 질문이란 _____

2차시

사실 영역



1. 고약해 교장 선생님의 '말하기 고민 상담소'가 열렸어요. 여러분이 고약해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의 고민에 답해 주세요. 책에 나온 다섯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답을 적어 보세요.



고약해 교장의 '말하기 고민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나요?



저는 발표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손에 땀이 나고 말이 자꾸 꼬여요. 어떻게 하면 또박또박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말이지,



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친구들이 자꾸 화를 내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왜 그런 걸까요?



흠흠, 잘 들어 보거라.

2. 고약해는 임금에게 ‘무례하다’는 까닭으로 벼슬을 잃었지만, 1년 뒤 세종대왕은 그를 다시 불렀어요. 세종대왕이 고약해를 다시 부른 까닭을 책에서 찾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①

②

③

3. 고약해 경연학교에서는 다섯 친구가 저마다 ‘토론의 비법’ 하나씩을 배웠어요. 책에 나온 다섯 가지 비법을 찾아 빈칸에 써 봅시다.

① **또박또박** **기**

발표가 무서웠던 소리가 배운 비법. ‘또박또박 크게 말하렴, 네 목소리는 네 생각을 담는 그릇이란다.’

② **솔직하지만** **다치지 않게**

말이 거칠던 우직이가 배운 비법. ‘말은 칼과 같단다. 뜻이 옳아도 마음을 베면 상처가 오래 남지.’

③ **짧고** **말하기**

말이 너무 길던 하나가 배운 비법. ‘말이 너무 길면, 듣는 이가 네 생각을 놓치게 된단다.’

④ **좋은** **던지기**

질문이 어려웠던 모음이 배운 비법. ‘좋은 질문은 흐릿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단다.’

⑤ **주장에** **들기**

주장만 외치던 당찬이가 배운 비법. ‘주장에 근거가 있고, 근거에 사례가 있으니 믿을 만하오.’ 세종대왕은 늘 ‘옛일을 상고하셨지요.’

3차시

추론 영역



1. 나의 말하기·듣기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질문	네	아니오
발표할 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한다.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솔직하게 말하지만 친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		
중요한 말을 먼저, 짧고 명확하게 말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 있게 질문한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도 끝까지 들어 본다.		
내 생각의 까닭을 함께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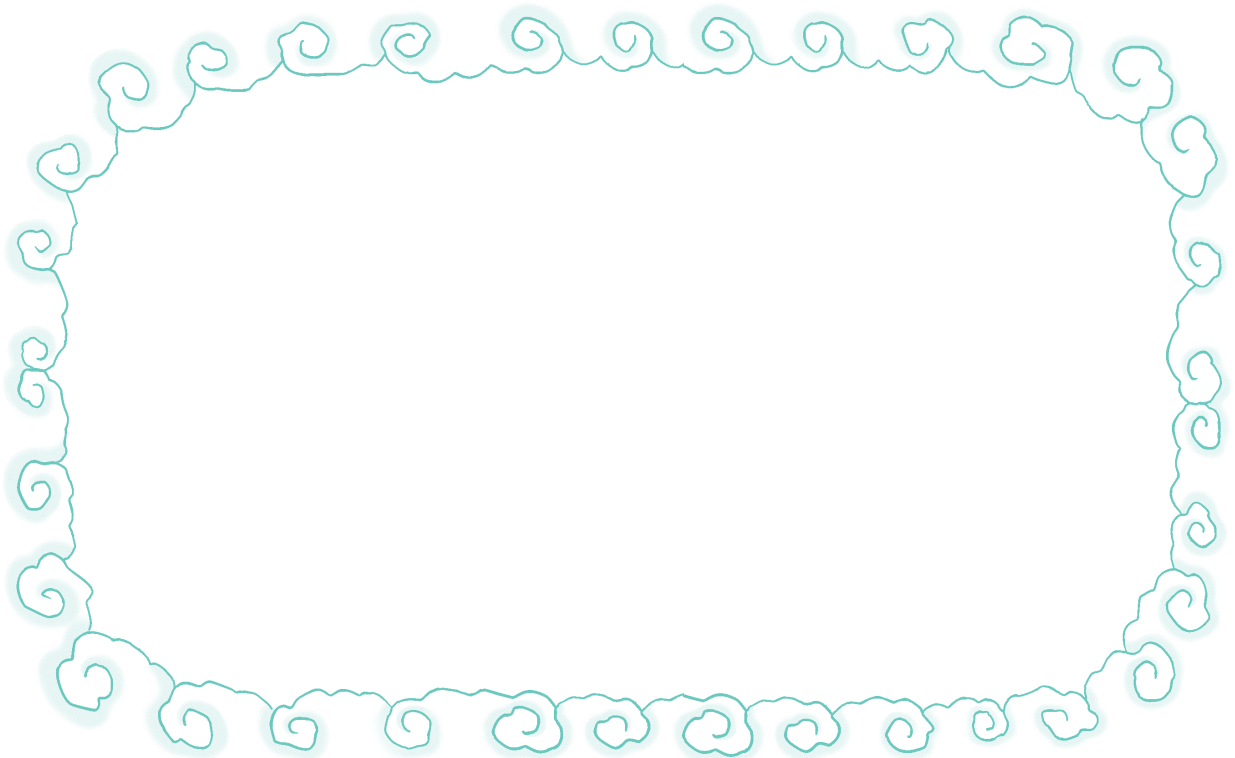
① 내가 말하기·듣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② 다섯 친구(소리·우직이·하나·모음이·당찬이) 중 나와 가장 비슷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까닭도 함께 적어 보세요.

③ ‘고약해 경연학교의 다섯 비법’ 가운데 내가 가장 배우고 싶은 비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④ 내가 부족한 말하기·듣기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써 봅시다.

2. 이번에는 여러분이 고약해 경연학교의 도우미가 되어, ‘고약해 경연학교 입학생 모집’ 광고문을 만들어 봅시다.



※ 광고문, 이렇게 쓰면 좋아요!

- ① 눈길을 사로잡는 짧은 문장(머리글)을 생각해 보세요. ② 누가 들으면 좋은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꼭 적어 주세요.
- ③ 고약해 경연학교의 마법 주문을 한 줄 넣으면 더 재미있어요. ④ 흥미를 끌 만한 그림을 함께 그려 주세요.

3. 《고약해 경연학교》에서 다섯 친구는 매일 해 질 녘, 학교 도서관 낡은 책장 앞에서 ‘마법 주문’을 외워야 조선시대로 갈 수 있어요. 책 속 주문을 떠올려 보고, 나만의 토론 주문을 만들어 봅시다.

책 속 주문 (다섯 친구가 손을 모으고 함께 외워요)



“토론 토론 세종처럼,
질문대왕 세종처럼,
독서대왕 세종처럼!
술술 풀려라, 말 잘하는 마법처럼!
우린 이제 술술 토론왕!”

4. 다섯 친구가 외우는 주문에는 ‘세종처럼!’이 세 번 나와요. 토론·질문·독서 세 가지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점이지요. 내가 세종처럼 갖고 싶은 힘 세 가지를 떠올려, 나만의 토론 주문을 완성해 봅시다.

나만의 토론 주문

세종처럼, ⇨ 첫 줄에 가지고 싶은 힘 한 가지 (예) 또박또박 말하기

대왕 세종처럼, ⇨ 두 글자 뽑기

대왕 세종처럼! ⇨ 두 글자 뽑기

술술 풀려라, 마법처럼!

우린 이제 술술 왕!





1.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추론하며 읽고 비판하며 읽는 연습을 해 봅시다. 《고약해 경연학교》 속 다섯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추론하며 읽기:** 글에 직접 쓰여 있지 않지만,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짐작하며 읽는 것.
- **비판하며 읽기:** 글에 담긴 생각이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까닭이 알맞은지 따지며 읽는 것.

<p>① 다섯 친구(소리·우직이·하나·모음이·당찬이) 중 가장 인상 깊은 친구는 누구이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p>	
<p>②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까닭도 함께 적어 주세요.</p>	
<p>③ 우직이의 솔직한 말이 친구들에게 상처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p>	
<p>④ 당찬이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주장을 말해요. 그런데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p>	
<p>⑤ 만약 고약해 선생님이 임금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는데도 벼슬을 잃지 않았다면, 고약해 선생님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함께 적어 보세요.</p>	
<p>⑥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와 같은 뜻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p>	

2. '진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나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진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둘 다인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_____

3. 《고약해 경연학교》는 약 600년 전 조선 시대의 '경연'을 오늘날에 다시 펼쳐 보인 이야기예요. 책을 읽고 새롭게 궁금해진 점은 무엇인가요?

4. 새롭게 생긴 궁금한 점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들아, 잘 따라왔구나!

_고약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토론은 누가 이기고 지는 놀이가 아니란다.

서로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더 좋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즐거운 만남이지.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매일같이 경연을 열었던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야. 너희도 이제 '함께 만드는 토론 세상'의 어엿한 한 사람이란다. 다음에 또 만나자구나!

2쪽 준비: 생각해 보세요

1. 떠오르는 것 쓰기

예) 말다툼이 아닌 것, 서로 다른 의견, 까닭, 듣기, 발표, 회의, 학급 회의, 의견을 모으는 것 등.

2. 책 제목 상상

예) '고약해'라는 이름이 재미있어요. 토론을 가르치는 학교일 것 같아요. 옛날 사람과 오늘날 아이들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3. '경연'의 뜻 짐작

'경'은 '책'과 관련된 글자, '연'은 '자리'예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던 자리예요.

3쪽 1차시: 어휘 영역

1. 초성 답

① 사정전(思政殿) ② 경연(經筵) ③ 토박토박 ④ 주문

2. 나만의 뜻(열린 답)

책의 내용·학생의 경험이 어우러졌다면 정답.

예) 경청은 '친구의 진심까지 느끼려 애쓰는 일'

예) 질문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4~5쪽 2차시: 사실 영역

1. 고약해의 말하기 고민 상담소

소리에게 발표가 떨리는 건 누구나 그렇단다. '토박토박 크게 말하렴! 네 목소리는 네 생각을 담는 그릇이란다.' 그리고 '발표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아는 것을 네 목소리로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단다.'

우직이에게 솔직한 마음은 보물이지만, '말은 칼과 같단다. 뜻이 옳아도 마음을 베면 상처가 오래 남지.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면, 같은 뜻도 따뜻하게 전해진단다.' 솔직한 것과 상처 주는 것은 다르지. 바른말을 하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솔직함이란단다.

2. 세종대왕이 고약해를 다시 부른 까닭

① 고약해가 임금에게 곧이곧대로 바른말을 하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이에요.

② 세종대왕은 본문에서 '나는 고약해의 바른말(직언)을 미워함이 아니라, 그 무례함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태도는 미워하되, 충직한 마음과 능력은 다시 쓰고자 하셨지요.

③ '다른 생각을 함께 들어야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세종은 평소에도 '낙어 토론(樂於討論)' — 토론을 즐기는 임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근거 형조 참판 고약해가 수령육기법(지방관 6년 임기제)을 무례하게 아뢰어 탄핵된 일 《세종실록》 세종 22년(1440) 3월 18일 / 우헌납 김길통의 청에 세종이 '직언이 아니라 무례함을 미워한 것'이라 답함. 1년 뒤 다시 쓰임. 시호 정혜(貞惠, 곧을 정, 은혜). 《세종실록》 세종 22년(1440) 3월 19일.

3. 다섯 가지 비법

① 토박토박 말하기(소리) ② 솔직하되 친구 마음 다치지 않게(우직이) ③ 짧고 굵게 말하기(하나)

④ 좋은 질문 던지기(모음이) ⑤ 주장에 근거·사례 들기(당찬이)

6~8쪽 3차시: 추론 영역

1. 나의 토론 습관 점검 (열린 답)

① 잘하는 점

예 친구가 말할 때 끝까지 듣는 편이에요.

예 궁금하면 손 들고 물어봐요.

② 닳은 친구

예 '소리'와 비슷해요. 발표할 때 떨려서 목소리가 작아져요.

예 '하나'와 비슷해요. 말이 자꾸 길어져요.

예 '당찬이'와 비슷해요. 주장은 있는데 까닭을 잘 못 들어요.

③ 배우고 싶은 비법

예 '알맞은 까닭(근거) 들어 말하기'를 배우고 싶어요. 주장만 있고 까닭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④ 고치는 방법

예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자신에게 먼저 묻기.

예 거울 앞에서 또박또박 세 번 연습.

2. 광고문(열린 답) 3. 책 속 주문(함께 외우기)

4. 나만의 토론 주문

책 속 주문(토론·질문·독서)의 형식을 살리고, 다섯 비법 가운데 자신이 갖고 싶은 힘을 자유롭게 넣었다면 정답으로 인정. (예 '또박또박 세종처럼, 경청 대왕 세종처럼, 근거 대왕 세종처럼……')

9~10쪽 4차시: 비판 영역

1. 추론하며·비판하며 읽기

① 인상 깊은 친구

예 우직이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솔직한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친구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에요.

② 중요한 사건

예 다섯 친구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함께 토론을 마치는 장면. '혼자 잘하는 것'과 '함께 잘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③ 우직이의 말이 상처가 된 까닭

예 솔직한 사실이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던지면 그 자체가 '무례한 말'이 돼요. 본문에서 고약해 선생님은 '말은 칼과 같다. 뜻이 옳아도 마음을 베면 상처가 오래 남지'라고 일러 주셨어요.

④ 당찬이의 주장에 친구들이 끄덕이지 않은 까닭

예 '당연히 해야 한다'고만 외쳤을 뿐, 왜 그래야 하는

지 알맞은 '까닭(근거)'을 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토론에서는 주장과 함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을 들어야 해요.

⑤ 가정 질문 예(열린 답)

예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지 못한 채 '바른말만 하면 된다고' 여기며, 더 거친 말로 사람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벼슬을 잃었기에 '말은 칼과 같다'를 깨닫고, 시호 '정혜(貞惠)'처럼 곧으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⑥ '토론' ≠ '말 잘함'

예 말을 잘하는 것은 '내 생각을 또박또박 잘 전하는 일'이지만, 본문에서 세종대왕은 '토론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다섯 친구가 저마다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그 차이를 보여 줘요.

2. 진짜 토론 잘하는 사람

예 '둘 다인 사람'이에요. 또박또박 말하는 일과 친구의 생각을 끝까지 듣는 일, 알맞은 근거를 들어 말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3. 궁금한 점(열린 답) 4. 궁금한 점 풀기(열린 답)